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1

Vol. 209
November 2017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11 Vol. 209
2017 / November

Special Performance

- 04 | 기획공연 I
국립무용단 <묵향>
- 06 | 기획공연 II
마르티누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8 | 기획공연 III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Special Exhibition

- 10 | 기획전시 I
판화가 오윤 회고전
- 12 | 기획전시 II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
「11~12월의 작가 천유리展」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7년 11월호 / 통권 209호

발행처_ 울산문화예술회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발행인_ 진부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기획·편집_ 홍보마케팅팀 (T. 052-226-8241~3)

디자인·제작_ 디자인 스토리

Contents

Art & Performance

- 14 | 울산시립교향악단
마에스트로 시리즈 6
- 16 | 울산시립무용단
바라기-동행



Art & Story

- 18 | 이탈리아 통신
알베로벨로(Alberobello)
- 21 | 예술을 말하다 I
조아키노 로시니8
- 24 | 예술을 말하다 II
웨스트의 올프 장군의 죽음
- 27 | 예술을 말하다 III
오네긴
- 30 | 김용진의 Piano Forte
베토벤의 편지
- 33 |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뮤지컬 코러스라인



Information

- 37 | 11월 공연·전시 가이드
- 41 | 11월 공연·전시 일정
- 43 | 화관알림
- 45 |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 47 |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바람마애단 | 세계가 열광한 한복춤의 현재

2017.
11.3.(목)
오후 8시

감독 이종우
연출 이규호
제작 극심우문화

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VIP 20,000원
R 10,000원
S 5,000원

문의
052-775-1902

향기
SCENT OF INK



“현대와 전통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내가 찾던 새로운 공연” - 레 누드 푸르비에르 페스티벌 예술감독 도미니크 들로르 -

“우아함과 기술적 기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춤” - 프랑스 주간지 텔레라마 -

“춤을 보다가 움직이는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황홀. 대중과 통(通)하는 한국무용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 조선일보 -

“옛것에서 태어났으되 과거를 넘어 현재와 소통하는 우리 춤이었다” - 동아일보 -

PROGRAM

1장 서무 계절의 시작. 하얀 도포 입은 남자 무용수들의 선비춤이 묵향의 시작을 알린다

2장 매화 찬 서리 덮고 매화향 가득하니 완연한 봄이로다
깨끗한 정가의 목소리를 타고 등장한 한 송이 매화, 조용한 움직임이 여성군무로 이어진다

3장 난초 파스한 바람 실려 은은히 퍼져가는 난초의 향난을 그리는 선비의 자태, 초록빛 저고리 입은 난초를 만나 조화로이 움직인다

4장 국화 늦가을 칼바람에 묵묵히 피어나는 노란국화 버선코가 살짝 내비치는 둥근 치마폭 움직임을 타고 흰 캔버스가 노랗게 물든다

5장 오죽 대나무의 절개 하늘에 드리워 그 기운 청청하리라 대금 산조를 탄 남성군무가 곧은 대나무 속 유연함을 표현한다

6장 중무 남성군무와 여성군무의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 사계절 자연의 조화가 펼쳐진다

세계가 열광한 한국춤의 현재

간결하게 정제된 한국 전통춤의 맛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며 전통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려온 국립무용단 <묵향>. 2016년 2월 홍콩예술축제에 한국무용 장르로는 처음 초청되어 현지 관객의 호평 속에 전회 매진을 기록한 이후, 6월에는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70년 역사의 프랑스 리옹 레 누드 푸르비에르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세계 무용계의 호평을 받은 한국춤의 위상을 울산에서 만나보자.

사군자의 덕을 담은 순백의 무대, 짙은 먹선처럼 퍼지는 강렬한 춤의 잔향

무용수들의 미세한 움직임이 지닌 깊이를 담아낸 윤성주의 안무, 미니멀한 양식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한 아트 디렉터 정구호의 연출이 만난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문인화의 대표인 사군자를 주제로 군자의 덕을 표현하려 했던 최현 선생의 군자무 정신과 국립무용단의 춤사위가 지닌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선비의 도와 인품을 나타내듯 고아한 아름다움이 표현된 사군자를 주제로 매년국죽, 그리고 그들이 상징하는 봄·여름·가을·겨울이 화선지 위에 그려져 짙은 먹선처럼 강렬한 춤의 잔향을 남긴다. 강인한 듯 여유로운 남성무,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성무가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진 <묵향>은 한국춤 속에 내재된 정중동의 미학을 깊은 울림으로 전달한다.



MARTINU CZECH PHILHARMONIC 마르티누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ORCHESTRA



2017.11.11.(토) 오후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 ▲ 울산광역시, 주관 | ▲ 울산문화예술회관 관람시간 | 약 100분 (인터미션 포함) 관람연령 | 8세(초등1학년) 이상 관람가
티켓가 | VIP석 40,000원 3석 30,000원 3석 25,000원 공연 | 마르티누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Leos Swarovsky) 협연 | 카이롤리나스도 데라핀
페레 및 모의 |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후원 |



레오스 스와로브스키
Leos Swarovsky | Conductor

프라하 음악원에서 플루트를 전공한 후, 프라하 음악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공부했으며, 바클라프 노이만을 사사하였다. 졸업 후,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즈데넥 코슬러의 어시스턴트로 지휘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체코슬로바키아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한 그는 1991년, 카리안 재단의 초청으로 개오르그 솔티, 클라우디오 아바도, 빈 필하모닉과 함께하는 “잘츠부르크 여름축제 Sommer-spiele Salzburg”에 초청받기도 했다. 프라하 국립극장 발레단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슬로바키아 필하모닉의 종신 객원지휘자로 선정되었다. 2003년부터 2년 동안 프라하 시립 오페라에서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브르노 필하모닉의 명예 지휘자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에서도 역량을 펼치고 있어 2014년 봄부터 현재 나고야 필하모니 교향악단 수석 상임 지휘자이다. 체코 필을 비롯, 그 외에도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오케스트라,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잘츠부르크, 바흐 콜레기움 뮌헨, 상해 방송 교향악단, 위트레흐트 방송 교향악단, 콜로라도 음악 축제 오케스트라, 체코 방송 오케스트라, 자그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휘봉을 잡았다. 2000년부터는 프라하 음악 예술 아카데미 지휘과 교수 및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의 수석 상임 지휘자로 재직하고 있다.

마르티누 체코필하모닉오케스트라

Martinu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은 체코가 해방된 1945년 6월 1일, 바다 국립 회사에 의해 즐린에서 창립된다. 50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초기 필하모닉은 1946년 2월 2일, 루돌프 Kvasnica 에 지휘로 초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 여름휴가 기간 Luhacovice에 모여든 Spa 관광객들을 위한 정기 콘서트가 지역의 전통이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다. 당시 토마스 Baťa 기념관은 오케스트라를 위해 House of Art로 개조되었다.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은 Rudolf Kvasnica, Richard Tynsky, Eduard Fischer, Jaroslav Opela, Rotislav Haliska, Stanislav-Macura, Petr Altrichter, Milos Machek, Peter Lucker, Kirk Trevor, Tomas Kout-nik, Jakub Hrusa 등 수많은 최고의 상임 지휘자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체코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2008년에서 2009년 까지 Stanislav Vavrinek가 수석지휘자 자리를 지켰으며, 주요 초청 지휘자 Walter At-tanas이를 비롯 수많은 지휘자와 최고의 솔리스트들이 함께했다. 스메타나 국제음악 축제, 5월 야나첵 오스트라바, 스피이버크 브르노, 프라하 봄 축제, 프라하 뮤직 페스티벌 투어 공연에도 참가하며 ‘Talentinum’이라는 젊은 예술가를 위한 참신하고 특성 있는 festival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을 축제 Hamonia Moraviase를 매년 주관하고 있다.

이혜림 Haerim Elizabeth Lee | Violinist

-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학사), 라이스대학교 음악대학 전액 장학생(석사), 미시간대학교 음악대학 전액장학생(박사), 파리고등국립 음악원 수학.
- 2015 Tarisio Young Artist Grant 수상 (MoKo Musik), Fischhoff 실내악 콩쿠르 3위, Elizabeth Harper Vaughn 콩쿠르 1위, North Carolina Symphony 콩쿠르 1위, NC American Strings Teacher Association 콩쿠르 1위 외 다수 경연대회 수상.
- 체코 Filharmonie Bohuslava Martinu 교향악단, 미국 마운틴 심포니, 미국 윈스텀세일럼 교향악단, 멕시코 몬테레이 교향악단, 대전시립 교향악단 등과 협연.
-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의 제38회 Kennedy Center Honors 수상 축하 연주회에서 악장으로 첼리스트 요요마와 연주(오바마 대통령 참관, 2015년).
- 영국 프루시아 국제 음악 세미나, 캐나다 밴프 음악제, 미국 아스펜 국제 음악제, 대전 썸머 뉴아티스트 콘서트, 대전실내악축제, 로마 실내악축제, 미국 스포레토뮤직 오케스트라, 탕글우드 음악제, 사라 소타 음악제, 독일 쉴즈워-홀스테인 음악제 등 다수 음악제 연주.
- 2016년 “My Time is Now: music for Violin and Piano- inspired by the Gerwehins” 녹음.
- 현재 MoKo Musik 예술감독, Innsbrook Music Festival 음악조감독, 미국,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에서 솔리스트 및 다재다능한 음악가로 활동



P R O G R A M

“Symphonic Poem “The Moldau(Vltava)” from “My Country”
B.Smetana(1824~1904)

교향시 “나의조국” 중 “몰다우강” 스메타나

Violin Concerto in A minor, Op.82 A.Glazunov(1865~ 1936)
바이올린협주곡 글라주노프

Violin | Haerim Elizabeth Lee(이혜림)

1st mov. Moderato (4:30)
2nd mov. Andante (9:29)
3rd mov. Allegro (6:38)

Intermission

Symphony No.9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A. Dvorak(1841~ 1904)

제9번 교향곡 드보르작

1st mov. Adagio(8:9)
2nd mov. Largo(11:36)
3rd mov. Molto vivace(7:27)
4th mov. Allegro con fuoco(13:18)



in 울산

2017. 11. 24.(금) ~ 25.(토)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공연시간 | 금 오후 8시, 토 오후 4시 • 관람연령 | 만 13세 이상 • 공연시간 | 100분 • 출연 | 노진원, 박철민, 이호원

흥행강패 유쾌한 오빠들이 돌아왔다!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두 늙은 도둑의 노후 대책을 위한 마지막 한 탕! 그런데 하필 '그 분'의 미술관에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난 두 늙은 도둑이 마지막 한탕을 꿈꾸며 '그 분'의 미술관에 잠입하게 된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는 '그 분'의 미술관에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지만
작품의 가치를 모르는 두 늙은 도둑은 '그 분'의 금고만을 노린다.
금고 앞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며 옥신각신 끊임없이 다투다가 결국 경비견에게 붙잡혀 조사실로 끌려간다.
있지도 않은 범행 배후와 있을 수도 없는 사상적 배경을 밝히려는 수사관과
한심한 변명만을 늘어놓는 어리숙한 두 늙은 도둑의 대화는 점점 포복절도 웃음만...

ABOUT THE PLAY

오랜 시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연극 <늘근도둑이야기>는 소극장 특유의 장점을 한껏 살린 작품으로, 현시대를 유쾌하게 풍자하고 배우들의 입담과 열연으로 연일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대표 시사코미디 연극이다.

<늘근도둑이야기>는 대통령 취임 특사로 풀려난 '더 늘근 도둑'과 '덜 늘근 도둑'이 '높으신 그 분'의 미술관에서 금고를 털려다 실패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작품 속 '두 늙은 도둑'이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돌직구는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꼬집으며 익살스런 웃음은 물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한민국 신스틸러들의 빼어난 연기력과 거침없는 애드리브도 남녀노소 관람 열풍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 <늘근도둑이야기>에는 브라운관과 스크린, 무대까지 중형무진 중인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늘근도둑이야기>의 대명사이자 히로인 '박철민'을 필두로, 탁월한 쇼맨십과 코믹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노진원', 훈훈한 외모와 흡입력 넘치는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 '이호연'이 출연한다.

VIEW POINT

POINT 1. 남녀노소 사랑받는 국가대표 시사코미디!

안타까운 세태에 보내는 통렬한 웃음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돌직구
흥행불변, 변함없는 스테디셀러 시사코미디의 본좌
배꼽 잡는 큰 웃음 보장

POINT 2.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애드리브의 향연!

매 공연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촌철살인 도둑들의 만담 콤비
관객과 배우 모두 호평, 지지를 보내는 공감 100% 무대
배우들의 찰진 입담과 열연, 100분을 꽉 채우는 원동력

POINT 3. 대한민국 베테랑 신스틸러 총출동!

2015 신스틸러 수상에 빛나는 <늘근도둑이야기>의 대명사! '박철민'
민고 보는 배우 '노진원' '정경호' '성열석' '안세호'
비주얼 보장 열혈 배우 '민성욱' '이호연'
新 개성파 젊은파 '태항호' '전재형' '유일한' '나대남'
베테랑 배우들과 신예 배우들의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무대

CHARACTER&CAST



더 늘근 도둑 (배우 노진원)

늙은 나이에도 도둑질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할배

“도둑놈한테는 道가 있어!”



덜 늘근 도둑 (배우 박철민)

허풍과 거짓말의 달인!
말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허풍의 진수

“저 자꾸 도둑질 도둑질 하지 마슈! 난 사기 전문이야!”



수사관 (배우 이호연)

위엄 포스 자렬, 하지만 도둑들에게 은근히 휘둘리는
허당 수사관

“저기 뭐하러 들어갔어요?”

REVIEW

“현재 공연중인 연극 중 최고로 웃기는 작품!” - 조선일보

“청량유미 같은, 야근 후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늘근 도둑 이야기’” - 중앙일보

“시사코미디 연극으로 정평이 나있는 작품인 만큼 익살과 해학은 여전” - 문화일보

판화가 오윤 회고전

기간 : 2017. 11. 11.(토) ~ 11. 19.(일), 9일 간 / 장소 : 제1전시장



웃놀이, 1984, 고무판, 채색, 28.3X35.5cm



아버지, 1981, 목판, 36X35cm



김장, 1984, 고무판, 채색, 27.5x35cm



소리꾼, 1985, 목판, 채색, 27.3X24.9cm



복춤, 1985, 목판, 31.6X25.5cm

울산 문화예술회관은 11월 11일~11월 19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초청기획전시「관화가 오윤 회고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을 이끌었던 오윤의 관화, 드로잉, 유화, 테라코타 등 다양한 작품 60점과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여 한국미술사에서 큰 획을 그은 오윤의 미술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울산지역 전시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오윤은 1946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하면서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남다른 예술적 자질이 있었다. 바로 소설《갯마을》을 쓴 부친 오영수다. 어려서 부터 문학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으며 부산 동래 학춤 명무수였던 외조부의 영향도 작가의 예술적 영감에 근원이 되었다.

이번 전시는 서민들의 삶을 서정적 정서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과 70년대 초 경주와 서울 근교 등을 오가며 노역자, 농부 등 소외된 이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스케치 했던 습작들을 직접 볼 수 있다.

미술작품은 아는 만큼 보인다. 전시장을 찾으면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오윤의 작품세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현대미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1일 6회 전시설명 시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해 폭을 한층 넓혀줄 것이다.

작가연보

- 1946년 1946년 4월13일 부산 동래 낙민동에서 당시 경남여고 교사인 아버지 오영수와 어머니 김정선의 2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남.
- 1952년 (6세) 1952년 수정초등학교 입학. 부산 앞바다와 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수정동 언덕의 주택에서 생활.
- 1955년 (9세) 1955년 서울 돈암 국민학교로 전학. 부친 오영수의 《현대문학》창간을 위해 전 가족이 상경하여 돈암동 신흥사 입구 배밭골에서 정착. 국민학교 특별활동으로 문예부에 참여하여 재능을 보임. 집 벽에 사람 얼굴을 소조하여 동생과 함께 절하는 행동을 보이는 등 부친으로부터 미술 재능을 인정받음.
- 1965년 (19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
- 1970년 (24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이 시기에 미술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대중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조각보다는 회화적 조형논리에 비중을 두고 집중하게 됨.
- 1977년 (31세) 선화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강사로 취직. 조소, 판화, 테라코타, 도자기 과목을 지도.

- 1979년 (33세) 부친 오영수 사망 - 부친의 운명 직후 데드 마스크(Dead Mask) 제작. '현실과 발언' 창립 발기인으로 원동석, 최민, 성완경, 윤범모(이상 평론가), 손상섭, 김경인, 주재환, 김정현, 오수환, 심정수, 김용태(이상 작가)와 함께 참가.
- 1980년 (34세) '현실과 발언' 창립전 참가(동산방 화랑)
- 1981년 (35세) 중국 노신의 소설과 판화운동에 대한 자료와 중국, 한국의 고판화의 자료 수집에 열중.
- 1984년 (38세) 그림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 도서 간행물의 표지 및 삽화 제작을 위한 본격적인 조합 형식의 공동체적 판화그룹의 결성을 모색하며, 그 첫 시도로 풀빛출판사와의계약에 의해 시선집 10여 편의 표지 판화 제작.
- 1986년 (40세) 개인전 '오윤 판화전'을 열(그림마당 민), 판화집《갈노래》(그림마당 민)를 출간. 지방 순회전으로 부산 공간 화랑에서 '오윤 판화전'을 열. 7월5일 지병 악화로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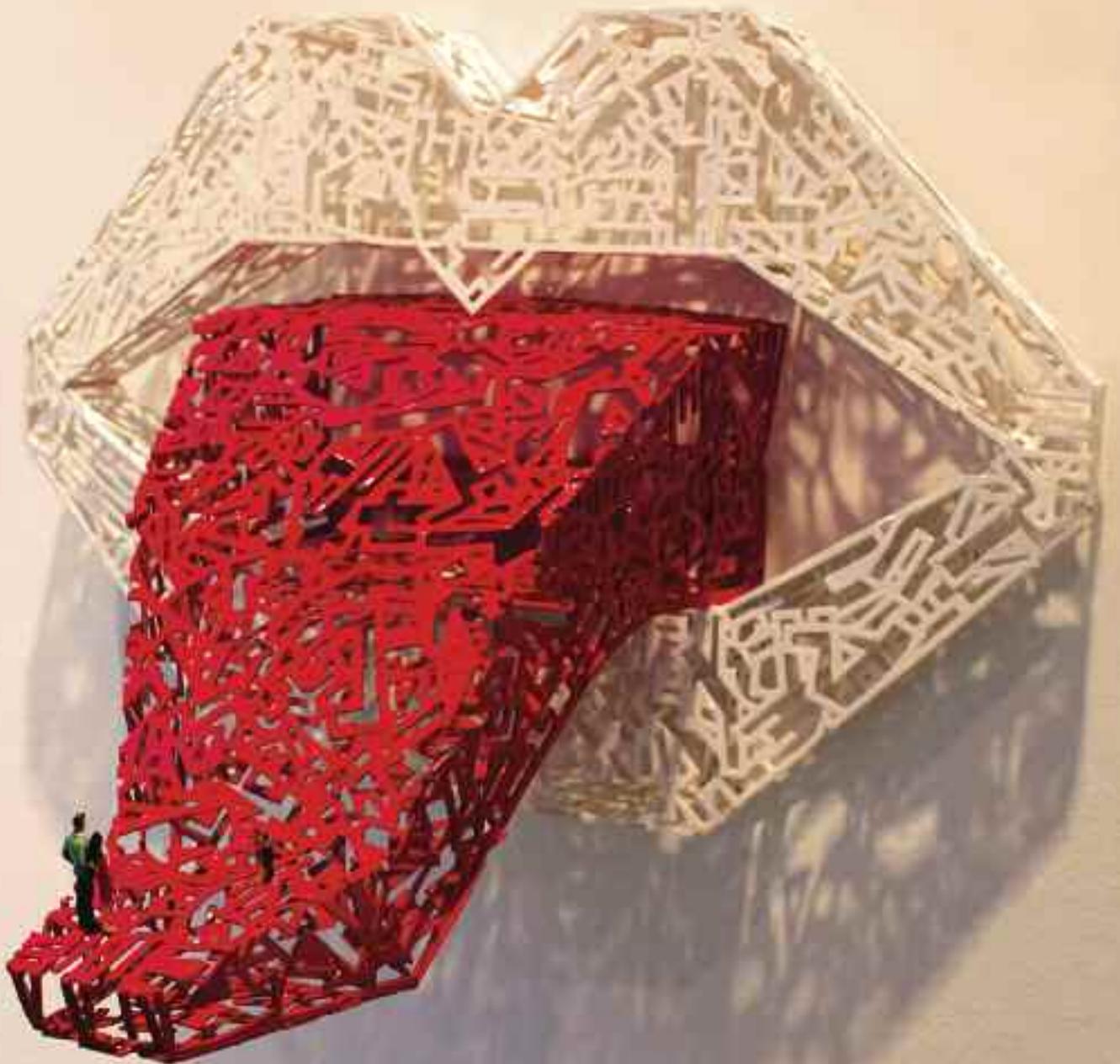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

11~12월의 작가

CHUN YOO-RI 천유리展

2017.11.1.(수) ~ 12.30.(토), 6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씬





Liberty, Mixed media, 22x9x17cm



Freedom, Mixed media, 13x13x25cm



Freedom2, Mixed media, 30x25x8cm

지역의 젊고 유명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된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7의 마지막 주자인 「11~12월의 작가 천유리展」이 11월 1일부터 6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슝”에서 개최된다.

천유리 작가는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중국, 울산,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자유’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자유란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작가관을 토대로 틀에 박힌 삶과 자유롭지 못한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라인 커팅 작업을 시작하면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찾고자 했다.

천유리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선의 성격이란 것은 대개 날카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좀 다른 분위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것은 나름의 변화감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직선들과 사각형의 면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하여 있어 작품을 좀 더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소재 역시 일상적 소재이지만, 참신하다. 분할된 면을 상상할 수 없었던 소재를 선으로 표현하면서 작가는 내면의 고정되어 있던 관념들을 자유롭게 재해석한다.

울산 지역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젊고 유명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 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마련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작가 프로필

천유리 Chun, Yoo-ri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부 서양화과 재학

〈단체전〉

- 2017 특급소나기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별의별 전시 (갤러리 한빛, 울산)
- 2016 썬놈들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Basic&리얼리즘 (아트울산,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울산)
썬놈들 (갤러리mun, 중국)
잉여들의 화려한 외출 (루이스반디, 울산)
은밀한Net (브리즈, 울산)
- 2015 Hit&Run II (무거갤러리, 울산)
섬표(MOIM) 풀밭의 미술관, 울산)
130 (게릴라 드로잉 전, 무거갤러리, 울산)
- 2014 11. 28. (무거갤러리, 울산)
중독 (무거갤러리, 울산)
- 2013 noon (무거갤러리, 울산)
11. 11 (무거갤러리, 울산)
20 (카페조우, 울산)

MAESTRO SERIES 6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th Subscription Concert
Maestro Series6
Fri 24th October, 2017. 8:00PM
Conductor : Heiko Mathias Forster
Violin : Mijoo-Lee

마에스트로 시리즈 6



2017. 11. 24.(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하이코 마티아스 퍼르스터 피아노 이미주



MAESTRO SERIES 6

세계적인 지휘계의 거장들과 함께 하는 마에스트로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뮌헨 심포니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체코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인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와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및 비요티 콩쿠르, 도쿄 국제 콩쿠르를 동시 석권하고 유럽과 아시아 미국을 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미주'의 협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베토벤의 걸작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와 교향곡 제5번 「운명」을 통해 수준 높고 감동의 여운이 오래 가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마에스트로 시리즈 그 마지막 무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 (Conductor Heiko Mathias Forster)

- 브란덴부르크 극장 음악감독 역임
- 뮌헨 심포니 상임지휘자 역임
- 독일 뉴웨스트팔리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역임
- 베를린 라디오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심포니, 모스크바 교향악단, 대만국립교향악단, 프라하 심포니, 체코국립교향악단, 슬로박 필하모닉 등 지휘
- 현) 체코 야나체크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피아니스트 이미주 (Pianist Mi-joo Lee)

- 벨기에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피아노 부문 입상
- 비요티 콩쿠르, 도쿄 국제 콩쿠르 동시 석권
- 유럽, 아시아, 미국, 남미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
- 베를린 필하모닉홀, Konzerthaus 다수 협연
- 유럽, 보스턴, 도쿄, 서울 등 수차례 협연 및 독주회
- 베를린 국립음대 교수, 세계 유명 콩쿠르 심사위원 초청

Program

- ▶ 바그너 / 오페라 [리엔치] 서곡
Wagner / Overture Opera [Rienzi]
- ▶ 베토벤 / 피아노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73 [황제]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in E-flat Major, op.73 [Emperor]
- INTERMISSION (휴식)
- ▶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67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67

INFORMATION

- 티켓_ R석/3만원 S석/2만원 A석/1만원
- 할인_ 회원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초,중,고)50% 할인
- 공연문의_ Tel. 275-9623~8 <http://ucac.ulsan.go.kr>
- 주최_ 울산광역시
-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입니다.



U 울산시립무용단
ULSAN 객원안무자 초청공연

바라기

동행

2017. 11. 17.(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책임안무 | 홍문주 연출 | 조경근



사막같은 도시에서 무엇을 낚으려는지
 쉽없이 횡단하는 현대인의 군상, 그 안에 진인眞人은 분명히 있다.
 춤을 추며 그를 기다린다 - 안무가 홍은주 -

사람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평화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바라기_동행』
 9년을 이어온 홍은주 객원안무자의 『바라기』시리즈의 완성작을 만나다!

한국의 미(美)를 담은 전통 춤과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는 울산시립무용단이 국내 정상급 안무자 홍은주 리움무용단 대표를 초청해 객원안무자초청공연『바라기_동행』을, 서울시뮤지컬단 연기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조정근의 연출로 엮어 오는 11월 17일(금)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연다.

홍은주의『바라기』시리즈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다섯개의 바라기 연작(“바라기 I - slave”: 2008, “바라기 II -The wall”:2011, “바라기 III -웃음”:2012, “바라기 IV -웃음에 관한 천착”:2015, 바라기 V-동행, waiting,,:2015)을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소재를 달리하여 인간 본질의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이번 울산시립무용단과의 무대에서는 “바라기 V-동행, waiting,,”을 더욱 완성도 있게 보완하여 “바라기-동행”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객원안무를 맡은 홍은주 안무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로 SK쉐라톤 워커히예술팀 예술감독 및 안무자, 경희루 연향 프로젝트 무용단 무용감독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성균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인재 육성에 힘쓰기도 했다. 또한, 2012년 경기도 전국무용제에서 ‘바라기 III -웃음’으로 금상, 최우수 연기상, 우수안무자상을, 2015년 한국춤평론가회가 수여하는 춤평론가상, 춤연기상을, 2017년 (사)한국춤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무용제전에서 ‘통·행·연’으로 관객평 1등 작품상 등을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사)리움춤연구원 리움무용단 대표, 배정혜 춤 아카데미 대표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은주 안무자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희망을 의미한다. 이번 작품을 통해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기다림의 바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상처와 상실감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면서 작품의 방향을 제시하고, “삭막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사막이라는 배경으로 담고 있으며, 한국적 창작춤을 기반으로 소리, 영상, 연극,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컨템포러리한 방향성을 추구하며 다원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더불어 이번 작품을 감상하는 울산 관객들과 진정성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ROGRAM

- 서막: 기억의 조각 ▪ 1장: 사막도시 ▪ 2장: 고리 ▪ 3장: 살얼음
- 4장: 천적 ▪ 5장: 올라가미 ▪ 6장: 기다림 ▪ 7장: 바라기



객원안무 홍은주

연출 조정근

Italia 통신

알베로벨로 Alberobello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 이탈리아 같지 않은 독특한 마을이 하나 있다. 바로 아름다운(Bello) 나무(Albero)라는 뜻을 가진 알베로벨로(Alberobello)라는 곳이다. 알베로벨로는 이탈리아 남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풀리아(Puglia)주 바리(Bari) 근교에 있는 인구 약 10,700명의 작은 도시이다. 대지와 해안평야가 전개되어 넓은 농업지역을 이루고 있고 포도, 잎담배, 올리브 재배와 포도주의 양조도 많이 하는 지역이다.





Alberobello

알베로벨로에 가는 방법은 바리(Bari) 기차역에서 타란토(Taranto)행 기차를 타면 알베로벨로역에 약 1시간 30분정도 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15분 정도 걸다보면 알베로벨로에 가까워지는데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유의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꼬깔콘처럼 생긴 독특한 원추형 지붕과 석회암으로 겹겹이 쌓아 올려 지은 트루로(Trullo)라는 작은 집들이 나온다. 이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은 마치 동화에서나 볼법한 스머프 마을을 연상하게 한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바라보면 더욱 장관을



이루는데 하얀 벽과 넓적한 돌을 쌓아 만든 지붕이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트루로는 고대 그리스 미케네 문명의 원추형 무덤 건축양식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천정이 높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장점이 있지만 벽이 두꺼워 실내는 좁은 단점이 있다. 트루로는 모두 같은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지붕 꼭대기에 저마다 개성 있는 장식품을 달아놓았다. 알베로벨로 외에 근교의 다른 도시에서도 트루로를 볼 수 있지만 이 알베로벨로에 트루로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

알베로벨로 트루리(트루로의 복수형)는 1996년부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선사 시대의 건축 기술이 아직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뛰어난 사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루리가 이 지역의 전통가옥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

오늘날과 같은 주거지의 기원은 14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트루리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피난처, 농촌 지역의 주택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로베르 당주(Robert d'Anjou)가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공로를 인정해 사람이 살지 않던 이곳을 타란토의 왕자에게 하사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왕자와 그 후계자들은 자신의 영지에 살고 있던 사람



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집을 지어 살게 하고 이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다. 새 거주민들은 자신의 주택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벽을 두르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그 목적은 두 가지였다.

당시 지방 정부에서 거둬 드리는 세금이 엄청나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철거할 때만큼이나 재빠르게 다시 짓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나폴리의 왕이 세금 사정관을 파견했던 1644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주민들은 세무원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지붕을 떼고 석판들을 재빨리 해체했던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남아있는 트롤리는 리오네 몬티(Rione Monti) 지역에만 1,030채, 리오네 아이아 피콜라(Rione Aia Piccola)는 590개의 트롤리가 있다. 이 중 30%는 실제 주민이 살고 있고 30%는 기념품점, 그리고 나머지는 빈집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 마을 큰 길가의 트롤리는 대부분 작은 갤러리와 트롤리 모양의 마그넷과 모형 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상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골목을 조금만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주민이 살고 있는 여러 집들도 개방하고 있어 내부를 구경할 수도 있다. 또한 트롤리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는데 특급 호텔 수준의 화려함은 없지만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고 편안함을 주기에는 손색이 없는 곳이다. 트롤리에서 하룻밤 머문다면 남부 이탈리아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소박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올리브 오일 박물관, 와인 박물관, 수공예 박물관, 그리고 마을 박물관 등 여러 개의 박물관이 있다. 마을 박물관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살던 주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시골집 주방도구들과 여러 세간살이 등 비슷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 친근감이 느껴진다.

성 안토니오 성당(Chiesa di Sant'Antonio) 또한 트롤리로 지어졌는데 이곳의 시민이자 성직자였던 구아넬리아니가 1926년 만든 성당으로 알베로벨로 트롤리 마을에서 지대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귀엽고 아기자기한 집들이 웅기중이 모여 있는 모습에 보는 사람 마음도 평화롭게 해준다. 트롤리 마을은 두 세 시간이면 돌아보기 충분해서 보이는 골목을 찾아 곳곳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데 집집마다 지붕 모양과 창문 모양도 조금씩 달라 색다른 모양의 집들을 구경하는 매력도 느낄 수 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닥다닥 붙은 트롤리의 문 안에서 작은 난쟁이들이 튀어나와 해맑게 반겨줄 것만 같은 동화속 주인공이 된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글_김진홍





엘리사베타, 영국 여왕(사진출처: Theater an der Wien)

조아키노 로시니 8

Gioachino Rossini

‘시吉斯몬도 Sigismondo’

‘이탈리아의 터키인’ 다음 작품인 15번째 로시니 오페라는 음악드라마(Dramma per musica) ‘시吉斯몬도’이다. 베니스의 라페니체 극장에서 1814년 12월 26일 초연하였다. 대본은 ‘비단 사다리’, ‘브루스키노씨’ 대본을 맡았던 주세페 마리아 포파가 집필했다.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자. 콘트라 알토 배역인 폴란드 왕 시吉斯몬도가 작품의 중심이다. 왕비 알데미라를 억울하게 죽게 했을 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유명에 쫓기는 폴란드 왕 시吉斯몬도, 사실은 간신 라드슬라오의 간계에 넘어가서 보헤미아 왕국의 공주인 왕비 알데미라와 수행원을 불륜으로 엮어 죄도 없는 이들을 시吉斯몬도가 사형에 처했던 것이다.

보헤미아 왕국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국의 공주 알데미라의 원수를 갚겠다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알데미라는 사형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서 숲 속 마을의 어느 오두막집에서 어느 의인의 도움으로 가명을 쓰고 숨어 살고 있었다. 시吉斯몬도는 결국 신하의 배신을 알게 되어 간신을 벌하고 왕비와 다시 화합하면서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는 작품이다. 로시니는 이 시기가 슬럼프였다. ‘탄크레디’의 대성공 이후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 ‘이탈리아의 터키인’을 작곡했는데 ‘탄크레디’ 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시吉斯몬도’는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



엘리사베타, 영국 여왕 (사진출처: Theater an der Wien)



엘리사베타, 영국 여왕(사진출처: Teatro Comunale)

훗날 로시니의 회상에 의하면 초연 날 라페니체 극장 관객들은 불만 폭발의 일보직전까지 갈 만큼 지겨워했지만 참아주었고 공연이 끝까지 연주될 수 있도록 조용히 있었다고 한다. 로시니는 이러한 관객들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극장 측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주세페 마리아 포파의 대본에 있다고 보았다. 대본은 로시니 음악 특유의 생동감을 전혀 살릴 수 없게 집필되어 있었다. 초연 몇 년 뒤 파두아, 크레모나, 플로렌스, 볼로냐 등지에서 재공연이 되다가 사라졌다. 이 오페라에 나오는 음악들은 나중에 ‘영국여왕 엘리사베타’, ‘세비아의 이발사’, ‘아디나’ 등에 재사용 되었다.

나폴리 시절의 시작

‘시기스몬도’ 초연 결과에 낙담한 로시니는 1815년 베니스를 떠나 자신의 제2의 고향 볼로냐로 돌아왔다. 이 때 로시니의 재능을 알아본 나폴리의 극장주이며 기획자인 도미니코 바르바이아(Domenico Barbaia)가 로시니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계약을 요청했다. 바르바이아는 로시니에게 월 200 듀카트의 월급에 나폴리 2개 극장, 산 카를로극장(Teatro San Carlo)과 텔 폰도 극장(Teatro del Fondo)의 음악감독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바르바이아는 1년에 1개 이상의 오페라 작곡을 부가조건으로 걸었다.

거기에 덧붙여 극장의 별실 사교장(ridotto)에 마련된 도박장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정부분을 로시니가 챙겨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극장에서 오페라를 공연할 때에 휴게시간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극장 측은 도박관을 마련해주고 커미션을 받아 챙겼다. 로시니는 극장의 음악감독으로서 도박관 수익에서 매년 1천 듀카를 받았다. 이러한 예외 수입은 당시 음악가 들로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배려였다. 이때부터 로시니는 거금을 벌기 시작했다. 로시니는 당연히 바르바이아의 제안을 수락 했고 곧바로 나폴리로 가서 오페라 작곡에 착수하였다.

엘리사베타, 영국 여왕 Elisabetta, regina d'Inghilterra

로시니가 나폴리에서 총 작곡한 오페라는 18 작품, 그 중 산카를로 극장을 위해서는 9 작품이고 그 첫 오페라가 ‘엘리사베타, 영국 여왕’이었다. 1815년 10월 4일 초연되었다. 2막으로 구성된 이 오페라의 대본은 조반니 슈미트(Giovanni Schmidt 1775~1839)가 카를로 페테리치 ‘레스터의 시동과 소피아 리 휴식’을 원작으로 대본을 집필했다. 새로운 역사음악극 스타일의 이 오페라가 성공함으로써 로시니는 한동안의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게다가 초연이 엘리사베타 역을 맡았던 소프라노 가수 이사벨라 콜브란(Isabella Colbran)은 후일 로시니의 첫 부인이 된다. 이 오페라는 로시니에게 여러 모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다.

로시니는 이 작품의 경우 큰 인기를 얻은 서곡부터 자신의 이전 다른 오페라 선율들을 특히 많이 차용했다. 이는 로시니가 나폴리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오페라이기에 자신의 최고 음악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줄거리와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이사벨 콜브란과 테너 안드레아 노자리를 위해 최고의 아리아들을 곳곳에 포진시켰다. 로시니는 이 오페라에서부터 대사 부분에 처음으로 현악기 반주를 삽입하기 시작했다. 오페라는 대성공하였고 로시니는 당장 나폴리에서 확고한 위치를 자리하게 된다. 1818년 런던에서 초연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자국 여왕을 소재로 한 이 작품에 무한한 찬사를 보냈다.

또한 이 작품의 성공은 당시 10대 후반의 작곡가 지망생 가에타노 도니제티(Gaetano Donizetti 1797~1848)에게 깊은 감명을 주게 된다. 로시니는 영국여왕 테마의 오페라는 이 작품뿐이지만 로시니에게 감명을 받은 도니제티는 흔히 여왕 3부작이라고 일컫는 ‘마리아 스투아르다(메리 스튜어트 여왕 1835), ‘안나 볼레나(왕비 앤 볼린 1830) ‘로베르토 데브뢰’(엘리자베드1세 여왕 1837)를 작곡하게 된다.



엘리사베타, 영국 여왕(사진출처: Teatro Comunale)



시그스문도 (사진출처: 로시니 페스티발)

»» 줄거리 ««

제1막 (배경 : 화이트홀 궁전)

여왕 엘리사베타 1세가 총애하는 레스터경이 스코틀랜드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여왕의 축하를 받는다. 레스터경의 친구 노포크 공작은 친구의 승리를 질투한다. 레스터경은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의 평화를 위해 교환하기로 한 인질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나 레스터 경은 뒤늦게 그들 속에는 자신의 약혼녀 마틸다와 그녀의 오빠가 속해 있음을 알게 된다. 레스터 경은 약혼녀 마틸다가 위험한 짓을 했다고 꾸짖지만 이미 늦었다. 레스터 경은 약혼녀 마틸다가 그저 어느 고귀한 귀족 집안의 딸로만 생각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쟁자인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딸이었다. 레스터 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여왕에게는 말을 못하고 친구인 노포크 공작에게 자신의 비밀 약혼에 대해 털어놓는다. 그러자 노포크 공작은 여왕의 총애를 받는 레스터를 언제나 마음 깊이 시샘하던 터라 이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는다. 노포크 공작은 여왕에게 레스터 경의 비밀약혼과 인질 속에 포함된 약혼녀에 대해 고해바친다. 분노한 여왕은 자기 앞에 끌려온 레스터 경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제의하고 레스터 경은 거절한다. 레스터 경과 마틸다는 반역자로 체포된다.

제2막 (배경 : 궁전 내 & 감옥)

여왕은 마틸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마틸다는 여왕에게 레스터 경과 결혼을 포기 할테니 자신과 오빠의 목숨은 살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레스터 경이 이에 극렬히 반대하고 레스터 경은 사형을 언도받는다. 군중들은 레스터 경의 처형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슬퍼한다. 노포크는 레스터 경의 석방을 탄원하는 군중들을 자극한다. 노포크 공작은 감옥으로 레스터 경을 찾아와 자신은 여왕에게 레스터 경을 용서해주라고 청원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여왕이 감옥에 있는 레스터 경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찾아오자 노포크 공작은 얼른 몸을 숨긴다. 여왕은 레스터 경에게 노포크 공작이 그를 비난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때 숨어있던 노포크 공작이 단도를 들고 등장하여 여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때 마틸다가 나타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으로 여왕과 노포크 공작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여왕의 목숨을 구한다. 여왕은 노포크 공작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마틸다의 행동에 감동한 여왕은 레스터 경과 마틸다의 진실한 사랑을 인정하고 이들을 사면한다. 여왕의 자비에 감동한 레스터 경은 더욱 진심으로 여왕에게 충성하며, 잉글랜드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 주요 아리아 ««

- ‘얼마나 나의 영혼은 그대를 반기는가 Quant’è grato all’alma mia’ (1막, 소프라노 엘리사베타)
- ‘반역자, 벌을 받으리라 Felon, la pena avrai’ (1막, 소프라노 엘리사베타)
- ‘관대하고 부드러운 입술이여 Bell’alme generose’ (2막, 소프라노 엘리사베타)

글_ 송종진



시그스문도 (사진출처: 로시니 페스티발)

웨스트의 울프 장군의 죽음



도판 1. 벤자민 웨스트, 《울프 장군의 죽음(The Death of General Wolfe)》, 1770년. 캔버스에 유채, 152.6×214.5cm, 캐나다 내셔널 갤러리.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주의가 점점 힘을 키워갔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국가의 개념도 나타납니다. 각국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도,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긍심을 품고 나가는 것이 군대의 사기뿐 아니라, 국내의 여론을 조정하는 일에도 중요함을 인식한 것이지요.



도판 2. <울프 장군의 죽음>의 세부.

이 때 국민영웅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런 영웅 만들기의 대표적인 예로 벤자민 웨스트가 제작한 <울프 장군의 죽음>을 볼까요. 벤자민 웨스트는 사실 미국 출신입니다.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고,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후원을 받아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유럽 미술의 전통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런던으로 가서 화가로서의 경력을 쌓습니다. 식민지 출신의 화가가 영국에서 명성을 얻고, 심지어 왕립 아카데미의 창립 멤버가 될 정도였으니 그의 실력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겠지요.

웨스트 또한 역사화가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역사화’라고 하면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 미술에서 역사화는 이보다는 성경이나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온 이야기, 혹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말합니다. 당대의 사건을 다루기도 하지만, 대개 왕과 관련된 이야기 이구요. 그런 시대에 한 장군의 죽음을 주제로 한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미대륙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주도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특히 오스트리아의 왕위계승 전쟁이 불씨가 되어 유럽 곳곳은 물론, 아메리카와 인도의 식민지에서도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양사에서 <7년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 중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전쟁이 오늘 볼 <울프 장군의 죽음>(도판 1)의 배경이 됩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제임스 울프 장군은 영국의 군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인 전투 중 중요한 분기점이 된 퀘벡 전투를 이끌었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러 발의 머스켓 총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국가적 영웅이 된 그는 웨스트의 작품을 통해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이 그림은 북미 대륙에 대한 영국의 지배를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화면의 중앙에는 그림의 주인공인 울프 장군이 비스듬히 누워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판 4. 벤자민 웨스트, 〈넬슨의 죽음(The Death of Nelson)〉, 1806년. 캔버스에 유채, 182.5×247.5cm, 리버풀 워커 아트 갤러리.

울프 장군을 향해 몸을 기울인 자세가 자연스럽게 삼각형 구도를 이룹니다. 이 구도는 고전주의에서 자주 쓰이지요. 삼각형의 정점에는 영국 국기가 있고 그 아래로는 울프 장군이 누워 있어 애국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화면 왼쪽 저 멀리로는 탈취한 프랑스의 국기를 들고 달려오는 인물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영국의 승리를 알립니다.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프 장군은 전사하는데,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다양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중 화면 왼쪽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도판 2). 그의 복장과 문신은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손으로 턱을 받치고 있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연상되네요. 이 자세는 그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즉 지성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벤자민은 당시 유행하던 ‘고귀한 야만인’ 개념, 즉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이상적인 인간 본성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을 담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판 3. 윌리엄 울렛, 〈벤자민 웨스트의 ‘울프 장군의 죽음’ 모사〉, 1776년. 동판화, 46.3×58.5cm.

〈울프 장군의 죽음〉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의 그림은 성경이나 신화에 나오는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겨우 몇 년 전에 있던 당대의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구상할 때 아카데미의 동료와 후원자는 그림 속의 인물들에게 고대 로마의 의상인 토가를 입혀 시대를 초월한 영웅의 이미지를 부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는 화가의 붓은 역사가의 펜만큼 정확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이들의 옷도 상당히 고전적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울프 장군의 자세 또한 인상적인데, 전통적으로 종교화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내려지는 애도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세입니다. 게다가 배경의 구름이 걷히면서 나온 빛이 창백한 울프 장군의 얼굴을 비추는 듯한 극적인 표현도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연출을 통해 울프 장군은 단순한 전사자가 아니라, 영국을 위해 순교한 영웅으로 격상됩니다. 이 그림을 모사한 동판화가 수천 장이나 영국 국내외에서 유통되었다고 하니, 웨스트의 전략은 성공했나봅니다(도판 3).

넬슨 제독도 〈울프 장군의 죽음〉을 좋아한 영국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벤자민을 만났을 때 넬슨은 왜 그런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냐고 물었고, 벤자민은 그 이후 그렇게 고귀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넬슨은 자신이 웨스트가 그린 비슷한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몇 년 뒤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했고, 웨스트는 〈넬슨의 죽음〉을 그리게 되었습니다(도판 4). 농담처럼 한 말이 진짜가 된 것이지요.

글_ 황주영

세계적인 무용수들이
사랑하는 발레

오네긴

2017년 11월은 발레 팬들에게 반가움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달이 아닐까 합니다. 발레 <오네긴>이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거든요, 그런데 왜 아쉽냐고요? <오네긴>이 공연되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공연이 유니버설발레단 수석 무용수면서 국내 최초 현역 발레 무용수 커플인 황혜민, 엄재용 씨의 고별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즈음에서 데자뷔처럼 스치는 이름이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이죠? 맞습니다, 2년 전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강수진 씨 역시 은퇴작으로 <오네긴>을 선택해 국내에서 고별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드라마발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오네긴>은 강수진 씨 외에도 유니버설발레단 강예나,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의 다이애나 비쉬네바(Diana Vishneva), 이리나 디보로벤코(Irina Dvorovenko) 등 세계적인 스타 무용수들이 은퇴작으로 선택했고, 황혜민, 엄재용 커플 역시 <오네긴>과 함께 무대를 떠날 예정입니다. 발레 <오네긴>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수많은 스타 무용수들이 은퇴작으로 꼽는 걸까요?



(사진출처 : 유니버설발레단)



(사진출처 :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오네긴>의 탄생

발레 <오네긴>은 러시아 출신 알렉산더 푸쉬킨(Alexander Pushkin)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바탕으로 안무가 존 크랑코(John Cranko)가 만든 작품입니다. 발레에 앞서 1879년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유진 오네긴>이 먼저 공연됐지만, 존 크랑코는 오페라와의 차별을 위해 작곡가 쿠르트-하인츠 슈톨제(Kurt-Heinz Stolze)와 함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차이코프스키의 28개 피아노곡을 발췌해서 발레 <오네긴>만을 위한 관현악곡을 재편집했습니다. 지난 196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서 세계 초연됐지만, 국내에는 다소 늦게 소개돼 인기 레퍼토리 작품에 비해서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유니버설발레단이 공연권을 획득해 지난 2009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국립발레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드라마발레 <오네긴>의 매력

이 작품은 드라마발레의 거장으로 불리는 존 크랑코의 수많은 안무작 중에서도 뛰어난 서정성과 심리묘사로 많은 발레 스타들이 도전하고 또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오만하고 자유분방한 도시 귀족 오네긴과 아름다운 사랑을 갈망하는 순수한 시골 소녀 타티아나, 오네긴의 친구 렌스키와 약혼녀이자 타티아나의 동생인

올가까지 네 남녀의 어긋난 사랑과 이별을 둘러싼 복잡한 심리를 섬세한 춤은 물론 탁월한 연기력으로 풀어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춤과 연기의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연극처럼 등장인물들이 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기 하기 때문에 무용수의 내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수많은 발레 스타들이 <오네긴>을 사랑하고, 그들의 은퇴작으로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 크랑코는 클래식 발레의 낭만성을 유지하면서도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그랑파드되와 디베르스티망, 정형화된 마음, 거대한 무대세트를 제거하는 대신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내면 연기를 담아낸 독무와 2인무(파드되)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춤이 대사를 대신하는 것이죠. 1막 '거울 파드되'에서는 리프트와 점프로 첫사랑에 들뜬 타티아나의 열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면 3막 '회환의 파드되'에서는 오네긴과 타티아나의 어긋난 사랑의 애통함이 절절하게 표현됩니다. 또 연극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도록 안무하는데요, 19세기 러시아 제국주의 시절 무기력한 지식인이면서 상류사회의 전형적인 잉여인간인 오네긴은 등장부터 남다릅니다. 시종일관 나른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긴 다리를 느릿느릿 뺨으며 움직이죠. 반면 책과 사색을 즐기는 순수한 타티아나는 오네긴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의 주변을 종종걸음으로 맴돕니다. 하지만 사건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들의 몸짓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사 한마디 없이 춤으로 이 모든 감정이 표현된다는 것이 신기

(사진출처 : 유니버설발레단)



(사진출처 : 유니버설발레단)

할 따름입니다. 관객들은 원작의 내용을 몰라도 춤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고, 덕분에 발레로 담아낸 원작의 문학적인 가치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발레 <오네긴>을 관람할 때 눈여겨 볼 것들

거울 - 1막 1장에서 거울은 타티아나와 오네긴의 비극적인 사랑의 서막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여인들 사이에서는 '거울점'으로 미래의 반려자를 점쳐보는 놀이가 유행했는데요. 타티아나가 점을 볼 때 나타난 남자가 오네긴이었습니다. 타티아나가 오네긴을 더욱 운명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인 계기이기도 하죠. 1막 2장 타티아나의 꿈속에도 오네긴은 그녀의 전신 거울 속에 등장하는데, 이는 오네긴에 대한 타티아나의 맹목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반면 3막에서는 오네긴의 구애 편지를 받은 타티아나가 흥분과 불안 속에 책상에 앉아 거울을 보는데, 그때 거울에 비친 대상은 현실의 남편 그레민 공작입니다.

결투 - 19세기 유럽 사회 전반에서 성행했던 '결투'는 남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극중 렌스키는 오네긴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치근대자 흰 장갑을 꺼내 던지며 오네긴에게 결투를 신청하는데요. 결투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오네긴은 흰 장갑을 주워 결투를 받아들입니다.

편지 - 발레 <오네긴>에서 가장 눈여겨볼 소품은 바로 '편지'입니다. 2막에서 오네긴이 타티아나가 건넨 고백편지를 찢는다면, 3막에서는 타티아나가 오네긴의 구애 편지를 찢어버리면서 어긋난 사랑의 시작과 결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편지를 건넨 이의 마음이 함께 찢기는 것 같죠. 하지만 2막에서 오네긴이 냉정하고 무심하게 편지를 찢는 모습과 달리, 3막의 타티아나는 단호하지만 고통스럽게 편지를 찢는 모습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푸쉬킨과 오네긴

러시아의 국민작가로 불릴 만큼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푸쉬킨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를 연모하던 장교와의 결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푸쉬킨은 끈질긴 구애 끝에 1931년 13살 연하의 나탈라 곤차로바와 결혼했는데요. 결혼 후에는 빛에 시달렸습니다. 주된 이유는 사교계의 꽃으로 유명했던 아내의 사치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나탈라는 러시아로 망명한 프랑스 출신 장교 당테스와 염문설에 휩싸였는데요. 푸쉬킨은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그 결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1837년 38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앞서 1830년 발표한 <에브게니 오네긴>의 에피소드와 맞물려 푸쉬킨의 드라마틱한 삶은 묘한 씁쓸함을 안겨주는데요.

사실 운문소설 <에브게니 오네긴>은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19세기 문학이 21세기에, 그리고 오페라로 발레로 수많은 변주에도 여전히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화두인 '사랑'을 다뤘기 때문이겠죠. 특히 사랑이라는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춤'으로 쏟아낸 발레 <오네긴>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무대로 봐도 세상의 모든 어긋난 사랑을 위로하는 듯 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오네긴과 타티아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오네긴>은 가장 좋아 하는 발레 작품인데요. 특히 황혜민-엄재용 커플의 무대는 춤은 물론이고 연기력에 있어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네긴>을 다시 만나 행복하지만, 이번 무대를 끝으로 황혜민-엄재용의 <오네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깝네요.

글_ 윤하정

베토벤의 편지



나의 가장 귀한 친구



유년 시절을 보낸
피셔하우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쾰른 근방, 본 시의 어느 가난한 집의 보잘것없는 다락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3류 테너 가수였고, 술주정뱅이였다. 어머니는 요리사의 딸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재가한 상태였다. 누가 봐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 당시 연주를 하며 전 유럽을 순회하고 다녔던 신동 모차르트를 부러워한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을 이용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했다. 그로 인해 베토벤은 다락방에 갇힌 채 강제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습해야 했다. 유년시절부터 베토벤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으로 가혹한 인생을 겪어야만 했다.

1787년에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1789년 9월 15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샤테'박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이렇다.

“어머니는 나에게 참으로 좋은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니, 나의 가장 귀한 친구였다. 어머니라는 정다운 이름을 불러 볼 수가 있었으며, 그것을 어머니가 들어 주시던 그때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었으리라.”

17세에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베토벤. 두명의 어린 동생의 교육까지 떠맡아야만 했다. 우울증에 빠진 베토벤은 가장 귀한 친구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함께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다.

비창

1796년과 1800년 사이는 25세의 베토벤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기였다. 잦은 귓병으로 인해 매우 시달리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운명은 이미 베토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밤낮으로 베토벤의 귓속은 웅웅거렸으며, 장 질환으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소리는 점점 들리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베토벤은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으며, 점점 더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다.

베토벤은 다른 음악가들 보다 더 뛰어난 청각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베토벤의 청음 실력은 많은 음악가들의 부러움이자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다. 열손가락으로 동시에 누르는 피아노의 음정들을 다 알아맞출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청음 실력자이기도 했다.

1801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자 극심한 절망감에 빠진 베토벤은 급기야 두명의 절친, 목사 아멘다와 의사 베겔러에게 편지를 보낸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착한, 나의 정다운 아멘다.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고 나는 얼마나 여러 번 바랐는지 모르네... 나의 가장 귀중한 부분, 즉 나의 청각이 많이 약해져 버렸네. 우리들이 함께 지내던 그때부터 벌써 나는 이 병의 징조를 느끼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감추고 있었네. 그러나 병은 점점 악화되어만 갔다네. 이런 병은 낫기 어려운 것 같네.. 이러한 모든 괴로움을 초월해 보려고 스스로 마음 먹어 보지 않은 바도 아니네. 그러나 슬픈 체념, 나에게는 이것밖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네...”

또한 베겔러에게 “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거의 2년째 나는 일체 사교를 피하고 있네. ‘나는 귀머거리요’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 일세. 나의 적들이 무어라고 하겠는가! 그것도 적잖은 수의



베토벤의 친구 베젤러

적들이... 극장에서 배우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나는 오케스트라 바로 뒷자리에 앉아야만 하네.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악기나 목소리의 높은 음은 들리지 않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나의 존재를 저주하였는지 모르네..."



베토벤의 보청기

본인의 처지를 비판하며, 부정적인 삶의 태도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청년시절 베토벤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비극에 대한 체념과 슬픔은 그 시기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시기에 작곡된 곡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곡이 바로 “비창” 소나타이다.

장중하고 어두운 느낌의 1악장 그라베(Grave)는 죽음을 각오한 베토벤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악장이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Adagio Cantabile)은 1악장과는 정반대의 느낌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운명을 이제는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악장이다.

악성 베토벤

이제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된 베토벤. 옆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베토벤은 필담에 의존하게 되었다. 보청기에 의존해서 작곡을 하고, 음악회를 다녔다.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더 많은 소리들을 상상하며 베토벤은 작곡의 혼을 불태웠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베토벤은 항상 “환희”의 극치를 노래하기를 갈망하였다. 그의 갈망은 생애 최후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중 4악장 “환희의 송가”

“환희”의 테마가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에 오케스트라는 갑자기 멈춘다. 이 테마는 하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초자연적 정적에 둘러싸여서 “환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 오는 듯 하다. 이윽고 이 테마가 성악으로 옮겨질 때는 다소 억압된 느낌의 저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차차 “환희”는 전체를 휘어잡아 버리고 만다. 이것은 슬픔과 고뇌,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투쟁이다. 아마도 베토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환이 반복되는 부분이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곳곳이 견디며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다.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었지만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도 베토벤이다. 그래서 그를 악성 베토벤,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른다.

“웁게 또 멋멋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오직 그러한 사실 만으로써 능히 불행을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입증하고 싶다” <베토벤>

글_ 김용진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제 7 화

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뮤지컬 코러스라인 (A Chorus Line)

갓스무살... 연극이 좋았습니다. 아니 뮤지컬이 참 좋았습니다.

1990년의 한국 뮤지컬은 지금처럼 대단치 않았습니다. 유행어처럼 들리는 이야기는 'MBC 무용단보다 춤 못 추고 MBC 합창단보다 노래 못하고 연극배우보다 연기 못 하는 사람이 뮤지컬배우다'라는 비아냥이 뮤지컬배우라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수식어였고 또 대학 시절엔 교수님으로부터 뮤지컬을 한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픔이 있는 세대를 살아온 나(교수님)로써는 너(필자)처럼 천박한 표현방식(뮤지컬)으로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공격을 받으며 뮤지컬을 해 왔습니다. 아니 지켜 왔습니다. 그 교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저는 따따라라 불리는 연기예술 분야 중에서도 상업주의에 물든 천박한 뮤지컬 배우였던 셈이었으니 그저 뮤지컬이 미치도록 좋았기 때문에 해 왔다는 이유 말고는 그 시대에 뮤지컬을 할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뮤지컬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의 비전을 품는 직업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 문화 예술 전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전 시절 제게 (뮤지컬에)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뮤지컬 업계를 기웃거리는 모습에 웃으며 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지만 한국의 뮤지컬이, 아니 뮤지컬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던 한배우가 겪어온 지난 시간은 그리 웃음이 나오지 만은 않았습니다. 가난, 늘 아픈 몸... 다음 작품이 있을까? 라는 고용불안, 혹은 불안정한 미래...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은 업계의 현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개런티마저 못 받기 일쑤였고 주머니 속 꼬깃꼬깃 비상금들을 모아 소주 한잔과 눈물을 바꾸고 막차 끊긴 대학로를 터덜터덜 걸던 나날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견뎠는가에 대해 의문이 나올 만큼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견뎌 낸 걸까? 이렇게 힘든데 왜 뮤지컬을 하지? 참 대답하기 어렵기도 쉽기도 한 질문에 한결같이 할 수 있는 한마디는 그저 "좋아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좋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네.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켜본 사람들이 제게 했던, 정말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넌 좋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힘든 하루를 보상받는 위로의 말로 충분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치르는 대가는 오랜 시간의 고난과 광야길입니다. '시내에서 도 닦는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일을 좋아서 하는' 대가는 가혹합니다. 그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모여 한 줄 위에 서서 자신들의 인생을 노래합니다. 뮤지컬 코러스라인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오디션, 가혹한 현실

1940~50년대 뮤지컬의 황금기라 불리던 찬란한 브로드웨이의 영광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를 접어들며 TV의 보급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파도로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늘 똑같은 뮤지컬의 문법과 늘 다루던 소재, 늘 듣던 음악으로 관객들은 식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록 음악과 전자 악기의 무대 도입은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춰갈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를 선두로 새로운 오페레타 기법의 록 오페라가 밀려오고 연극은 실험극의 시대를 맞이하며 문화예술사의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 뮤지컬도 포스트모던, 실험극의 기법들이 록 음악과 함께 무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즉, 식상해 하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컨셉의 뮤지컬을 제공함으로써 탈출구를 모색해 갔습니다. 뮤지컬 가스펠, 피핀, 록키호러쇼, 시카고와 같은 기존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신선한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뮤지컬 시카고에서 정점을 이루는 듯했습니다. 1976년 토니상은 시카고에게 물표를 몰아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무대 위에 거울과 줄 하나만 존재하고 연습복 차림의 배우들이 줄 위에 쭈늘어서서 두 시간 반을 공연하는, 말도 안 되는 공연에 브로드웨이와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오프브로드웨이의 명가 퍼블릭 시어터에서 1975년 4월 오프닝 공연 후 곧바로 브로드웨이의 슈베르트 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1990년 4월 28일 종영에 이르기까지 6,317회의 공연을 이어가며 당시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우게 된 코러스라인은 1997년 6월 19일 '켓츠'가 최장기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깨지지 않은 위대한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1976년 토니상에서는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상, 극본상,

작곡상, 연출상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해 9개 부문에 수상하였고, 뮤지컬로는 드물게 폴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무대만큼 더 놀라운 것은 가스펠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처럼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을 소재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시카고처럼 신랄하고 날카로운 현대 사회의 풍자극도 아닌 그냥 뮤지컬에 미친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는 실시간 현장을 재현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이 공연의 성공은 더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도 '투자대비 수익률'에 있어서 '가성비 갑'인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배우들은 단 두벌의 의상뿐입니다. 두 시간 반 공연 중 두 시간 이십분을 입고 있는 연습복과 단 십분 커튼콜을 위한 금색 반짝이 의상이 그 전부입니다. 무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두 시간 이십분 동안 거울과 흰색 줄 하나가 전부입니다. 마지막 십분을 위한 화려한 전구로 장식된 배경하나로 무대도 끝입니다. 이전 세대, 즉 뮤지컬의 황금기 시대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수백 벌의 화려한 의상과 대규모 전환 무대, 그리고 특별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도배 된 브로드웨이 문법은 연습복 차림의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고 있는 실시간 현장으로 인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뮤지컬 연출가이자 안무가인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t)이 워크샵을 열어 배우들과의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 낸 배우들의 애환을 담은 코러스라인은 예선을 통과한 17명의 배우들 중 최종 8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코러스라는 이름으로 그저 주인공보다 눈에 띄면 안 되던 사람들이 개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각 장면에서 주인공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배우가 된 시작 이야기부터 가정의 이야기, 또는 자신이 노래를 못하는 음치라는 고백과 외모 점수가 나빠서 오디션마다 떨어졌던 자신의 이야기 등 정말 배우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멋진 무대를 만들어 냅니다. 심지어 자신이 게이라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고백이나 연출가와 연인 사이였던



여주인공이 다시 돌아와 오디션을 보면서 자신들이 왜 헤어졌는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이야기까지 배우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 관객들은 실제 오디션 현장을 엿보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들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하며 마지막 최종 선발 인원을 예측해 가는 재미로 공연 내내 긴장감 있게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긴장감 있게 진행되던 오디션 과정은 탭댄스 콤비네이션 오디션에서 갑자기 다리가 꺾여 쓰러진 폴로 인해 중단됩니다. 폴은 최선을 다해 마지막 단계까지 왔지만 결국 병원으로 실려 나갑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오디션장... 그 전까지 무대 위 배우들은 흰색 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었지만 이 때 잠시 배우들의 대형이 흐트러집니다. 그 위로 연출가 잭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민약당신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시는 춤을 출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배우들은 술렁입니다. 너무나.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하나 둘씩 상황을 적용해 봅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다시 해 봐야죠.' '영화나 알아 봐야죠.' '맘껏 먹고 살 짜올래요. 다이어트는 끝입니다' '이 바닥을 떠날 수는 없으니 연출가를 해 볼까요?' 등등 정말 모든 배우들이 한 번씩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들로 무대는 오디션 현장에서 현실 세상의 이야기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은 모두 무대 위 배역과 실제 인생 속 자신의 배우 모습을 중첩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뒤편, 일용직, 비정규직, 공연을 마치면 실직자. 불안한 미래와 힘든 현재...

서로 갈등과 회한이 정점에 이를 때 다이아나는 말을 합니다.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후회되나요? 다들 좋아서 하는 일 아닌가요?'

무대는 일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다이아나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나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내 친구들은 날 부러워하죠. 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리고 다이아나는 초심을 이야기 합니다.

'어릴 때부터 멋진 공연을 보고나면 나도 과연 저 무대에 서 볼 수가 있을까? 하곤 생각했죠. 그리고는 될 수가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배우라면 누구나 '나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배우의 초심.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이 지점에 도착을 하면 모든 배역, 아니 배우들은 자신의 배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나도 그랬지...'

극중 나이가 제일 많은 쉐라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자신의 초심을 이야기 합니다.

'나도 그런 말을 곧 잘 했지.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18살까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고, 25살이 됐을 때는, 앞으로 2년만 더 버티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30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코러스 걸을 할 수 있을까? 3년? 4년? 성형 수술을 하면 10년을 버틸 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하고 싶지는 않아! 아무튼, 잘 모르겠어.'

모두들 공감합니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다이아나는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우리 모두 몰라요. 하지만 내일이 또 돌아온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은 코러스 라인으로 돌아가며 노래합니다.

'눈물의 오늘을 키스로 보내고 (Kiss today goodbye) 나는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할 거예요 (What I did for love)'

그렇게 공연은 선택된 8명의 배우이름이 불리는 대신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며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막을 내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십분, 이 공연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공연용 화려한 무대가 등장하고 금빛으로 빛나는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해 인사를 하며 불후의 명곡 'ONE' 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고생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통해 단련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보상받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객석의 기립박수와 쏟아지는 환호성으로 배우들은 코러스라인을 공연한 배우 뿐 아니라 연기자로 무대 연기자로 살아 가는 애환의 시간을 보상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의 무게도 명성의 화려함도 아닌 단 하나라는 것이 감동을 더합니다. 이렇듯 뮤지컬 코러스라인은 배우의 오디션이라는 소재에서 배우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작품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미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갈채.

후회 없는 인생 한편!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미쳐있던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 하고 싶다면 좋아서 하고 싶었던 일로 돌아가십시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서 하고 싶은 일에 미쳐서 살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지금은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글_ 오세준





Performances

11월 공연가이드

제9회 울산 남구 SMI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5.(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남구 SMI청소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화려한 기악곡들과 클래식곡의 만남으로 울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

울산광역시 레이디싱어즈 제4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5.(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레이디싱어즈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광역시 레이디싱어즈의 합창과 기악공연

제12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7.(화)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피아노아카데미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대학교수 및 강사 중심의 전문 실내악 공연으로 피아노 실내악 공동연구 활성화 및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공연

제37회 울산예술제 음악협회 한국가곡의 밤

공연정보 11. 7.(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37회 울산예술제 음악협회 한국가곡의 밤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국악협회 국악의 밤

공연정보 11. 8.(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국악협회 국악의 밤

백합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9.(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백합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여성 아마추어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로 합창을 통하여 시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공연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연예예술인협회 어울림콘서트

공연정보 11. 9.(목) 18: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연예 예술인협회 어울림콘서트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연극협회 공연

공연정보 11. 11.(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제37회 울산예술제 울산연극협회 공연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 연주회

공연정보 11. 12.(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체험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연

김미경 소리 콘서트 IX

공연정보 11. 12.(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미경판소리국악원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지역에서 한번도 공연하지 않았던 철현금으로 재구성하여 흥겨운 소리판의 세계를 선보이는 공연

제19회 울산교사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4.(화)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교사 리코더합주단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사로 구성된 울산교사리코더합주단이 해마다 여는 정기연주회

구립교향악단 제58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4.(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 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오페라 등을 통해 울산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클래식



Performances

11월 공연가이드

제4회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7.(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배꽃청춘합창단의 4번째 정기연주회

국악연주단 민들레 제11회 정기공연 “同樂”

공연정보 11. 18.(토)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국악연주단 민들레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국악의 다양한 느낌을 통한 즐거움을 연주하고 관객과 함께 나누는 공연

제16회 울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8.(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가톨릭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전례 음악을 비롯한 성음악을 연구 보급하며, 합창을 통하여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나누고 실천하고자하는 공연

박종원 댄스컴퍼니의 ‘댄스뮤지컬 마스터’

공연정보 11. 19.(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박종원댄스컴퍼니
 입 장 료 R석:20,000원 / S석:10,000원
 공연개요 공연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연

아리랑보존회(사)울산지회 제4회 정기공연

공연정보 11. 19.(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아리랑보존회(사)울산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아리랑과 전통민요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는 공연

겨울이야기

공연정보 11. 21.(화) 10:15 소공연장
 공연주최 희망극단
 입 장 료 V석:6,000원
 공연개요 진실한 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뮤지컬

제28회 울산합창페스티벌

공연정보 11. 21.(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제28회 울산합창페스티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지역 민간 합창단체 및 시립합창단 공연

울산 남구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22.(수)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남구민과 고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합창 칸타타 공연

제6회 태화강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25.(토) 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태화강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태화강합창단의 6번째 정기연주회

울산선암 챔버 오케스트라(USCO) 제2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26.(일) 17: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선암호수노인복지관(울산선암 챔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선암 챔버 오케스트라(USCO)의 2번째 정기연주회

김소영민족소리원 제8회 정기공연 소리콘서트 ‘소리비6’

공연정보 11. 28.(화) 2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소영민족소리원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전통 판소리와 전통에 바탕을 둔 퓨전곡들을 선보이는 공연

2017년 국악한마당

공연정보 11. 30.(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국악협회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국악 관현악 및 실내악, 민요연곡으로 구성된 공연

Exhibitions

11월 전시가이드



제1회 울산건축문화제

전시기간 11. 2. ~ 11. 7.(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전시내용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건축관계자의 역량 향상을 향상시키는 등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통해 품격높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최하는 제1회 건축문화제

제19회 울산초등사진연구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9. ~ 11. 14.(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초등사진연구회
전시내용 내마음이 만난 열아홉번째 이야기 라는 주제의 울산초등교사들의 사진 작품 70여점 전시

제39회 울산여류작가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9. ~ 11. 14.(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여류작가회
전시내용 울산 12경을 주제로 서양화, 동양화를 평면과 조각으로 표현 한 작품 25점 전시

울산매일보도사진전

전시기간 11. 9. ~ 11. 14.(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매일신문사
전시내용 울산 곳곳의 사건 사고의 현장분 위기를 기자의 눈으로 담은 사진 50여점 전시

제34회 초동미전

전시기간 11. 15. ~ 11. 20.(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초동미술회
전시내용 한국화, 유화, 크로키, 입체작품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들의 작품 300여점 전시

울산제일일보 사진동호회전

전시기간 11. 15. ~ 11. 20.(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제일일보사진동호회
전시내용 제일일보 사진동호회 회원들의 1년간 활동한 사진작품 1000여점 전시



Exhibitions

11월 전시가이드

제9회 아시아 환경 미술제

전시기간 11. 22. ~ 11. 27.(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민족미술인협회
 전시내용 환경에 대한 주제로 국내작가는 물론 외국작가들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표현한 미술 작품 50여점 전시

제9회 경상사진동우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22. ~ 11. 27.(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경상사진동우회
 전시내용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울산의 시대별, 지역별, 테마별 어제의 사진을 토대로 울산의 발전된 오늘을 담은 사진 작품 60여점 전시

제15회 울산미사랑작가회전

전시기간 11. 22. ~ 11. 27.(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사랑작가회
 전시내용 서로 다른 표현 방법의 10여명의 회원들의 미술 작품 30여점 전시

제46회 울산일요화가회원전

전시기간 11. 22. ~ 11. 27.(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일요화가회
 전시내용 울산 인근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미술작품 45점 전시

울산 전국서도회 교류전

전시기간 11. 29. ~ 12. 4.(6일간)
 전시장소 제1,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도회
 전시내용 한문, 한글, 서각 등 다양한 소재의 서예 작품 250여점 전시

울산흑백사진연구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29. ~ 12. 4.(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흑백사진연구회
 전시내용 창의성과 예술적 열정을 인공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공업도시 울산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한 사진 50여점 전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 국립무용단 <목향> (20:00)	
5	6	7	8	9	10	11
▶ 제9회 울산 남구 SMI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19:30) ▶ 울산광역시 레이다싱어즈 제4회 정기 연주회 (19:30)		▶ 제12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정기 연주회 (19:00) ▶ 제37회 울산예술계 음악협회 한국가곡의 밤 (19:30)	▶ 제37회 울산예술계 울산독악협회 국악의 밤 (19:30)	▶ 백합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 (19:30) ▶ 제37회 울산예술계 울산연예 예술인협회 아폴로 콘서트 (18:30)		▶ 마르티누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30) ▶ 제37회 울산예술계 울산연극협회 공연 (17:00)
12	13	14	15	16	17	18
▶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 연주회 (19:30) ▶ 김미경 소리 콘서트 X (19:00)		▶ 구림교향악단 제58회 정기 연주회 (19:30) ▶ 제19회 울산교사민요대합주단 정기 연주회 (19:00)	▶ 두란 (19:30)		▶ 무용단 버마기 "동행" (20:00) ▶ 제4회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정기 연주회 (19:30)	▶ 제16회 울산기독교합창단 정기 연주회 (19:30) ▶ 국악연주단 민들레 제1회 정기 공연 "同樂" (19:00)
19	20	21	22	23	24	25
▶ 아리랑보존회 사) 울산지회 제4회 정기 공연 (19:30) ▶ 박종원 단스컴퍼니의 '단스뮤지컬 마스터' (19:30)		▶ 제28회 울산합창페스티벌 (19:30) ▶ 겨울이아기 (10:15)	▶ 울산 남구합창단 제18회 정기 연주회 (19:30)		▶ 울산시립교향악단 "미애스트로 시리즈 6" (20:00) ▶ 연극 <슬근도독이아기> (20:00)	▶ 제16회 태화강합창단 정기 연주회 (17:00) ▶ 연극 <슬근도독이아기> (16:00)
26	27	28	29	30		
▶ 울산연방 챔버 오케스트라(USOC) 제2회 정기 연주회 (17:30)		▶ 김소연프로소리원 제8회 정기 공연 소리 콘서트 '소리마6' (20:00)	▶ 두란 (19:30)	▶ 2017년 국악합마당 (19:30)		

전시일정

1 제1전시장 2 제2전시장 3 제3전시장 4 제4전시장 5 갤러리룸 6 야외전시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5 진유리展 ~12.30(토)	2 1 2 3 4 제1회 울산건축문화제 ~11.7(화)	3	4
5	6	7	8 3 제34회 초등미전 ~11.20.(월) 4 울산제일일보 사진동호회전 ~11.20.(월)	9 2 제19회 울산초등사진연구회 회원전 ~11.14.(화) 3 제39회 울산어류작가회 회원전 ~11.14.(화) 4 울산매일보도사진전 ~11.14.(화)	10	11 1 평화가오름 회고전 ~11.19.(일)
12	13	14 3 제34회 초등미전 ~11.20.(월) 4 울산제일일보 사진동호회전 ~11.20.(월)	15	16	17	18
19	20	21	22 1 제19회 아시아 환경미술제 ~11.27.(월) 2 제19회 경상사진동우회 회원전 ~11.27.(월) 3 제15회 울산마사랑작가회전 ~11.27.(월) 4 제46회 울산일요화기회원전 ~11.27.(월)	23	24	25
26	27	28	29 1 2 3 울산진공서도회 교류전 ~12.4.(월) 4 울산홍백사진연구회 회원전 ~12.4.(월)	30		

*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회관의 공연·전시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회관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서포터즈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모집안내

- 모집인원 : **20명 이내**
- 지원자격 : 가. 성년(19세 이상)인 사람
나.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다. 울산지역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
라. 최근 1년(2016년 11월 ~ 2017년 10월) 동안 회관의 공연·전시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
마. 회관의 주요 자체 공연·전시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한 사람
※ 우대사항 :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다수의 SNS 팔로워(방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활동소개

- 활동기간 : **2018. 1. 1. ~ 2019. 12. 31.(2년)**
- 주요활동 : 가. 회관의 기획공연·시립예술단 공연 및 기획전시 정보 SNS 사전 홍보
나. 공연·전시 초청 관람 시 관람후기 게재(SNS, 회관 홈페이지)
다. 회관 주요 자체 공연·전시 및 행사 시 참석
라. 회관 이용에 관한 개선 및 발전방안 제언 등
- 활동특전 : 가. 회관 기획예술단 공연 및 유료전시 초청
나.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 Friend) 우송
다. 공연·전시 관련 홍보물 및 보도자료 메일 송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11. 1. ~ 11. 30.**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 접수(bighand99@korea.kr)
※ 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은 <울산문화예술회관 서포터즈 이름 ○○○> 형식으로 통일
- 선정기준 : SNS 활동,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선정결과 발표 : 2017. 12. 15.(금)
※ 회관 홈페이지(<http://ucaculsan.go.kr>) 공지사항 알림 및 선정자 개별 안내
- 문 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홍보마케팅팀(☎226-8241~2)

11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이벤트

이벤트 하나

11월 한 달간 회관 기획공연 관람하고 관람후기 남기면~

관람 후기를 남겨주신 분 중 2명에게 **뮤지컬 레베카, 2017 나윤선 콘서트** 초대권(1인 2매)를 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7. 12. 1.(금)까지

○ 참여방법 : 11월 공연 관람 > 회관 홈페이지 접속 > 후기남기기(관람후기 게시판)

○ 대상공연



국립무용단
[목향]



마르티누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뒤란



무용단
[바라기_동행]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교향악단
[마에스트로 6]

이벤트 둘

12월 예정인 공연 중 보고 싶은 공연이 있나요? 보고 싶은 공연명과 이유를 남기면~
추첨하여 해당 공연 초대권(1인 2매)을 드립니다.

○ 참여기간 : 11. 1. ~ 11. 15.

○ 참여방법 : 회관 홈페이지 접속 > 커뮤니티 > 이벤트 게시판 > 댓글 등록

○ 대상공연



뮤지컬
[레베카]



2017
나윤선 콘서트



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어왕



뒤란

※ 선정·추첨결과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홍보마케팅팀 ☎226-8241~2)

중구문화의전당



2017 전국공연장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가운마임소 「광대들」

- 일 시 : 11. 22.(수)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11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광대마임소는 마치카툰처럼 위트와 재치, 그리고 생각해볼 그 무엇이 존재하는 작품



2017 전국공연장 상주예술단체페스티벌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

- 일 시 : 11. 23.(목)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진실한 사랑을 둘러싼 세 남녀의 갈등과 오해를 익숙한 아리아와 함께 유쾌하게 푼 작품



2017 전국공연장 상주예술단체페스티벌 「한국의 눈, 탱고를 보다」

- 일 시 : 11. 24.(금)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전세계 탱고곡 중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탱고계의 아리랑 전형적 4박의 리베르탱고를 제1. 탱고가 우리장단 역으로 재해석하여 국악의 구음과 함께 표현한 작품



2017 중구문화의전당 명배우열전 손숙의 「그 여자」

- 일 시 : 11. 17.(금) 19:30, 11. 18.(토) 15:00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안정적인 가정의 행복한 주부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모노드라마 작품



2017 전국공연장 상주예술단체페스티벌 오페라드라마 「눈물의 아리아 라보엠」

- 일 시 : 11. 28.(화) 19:30
- 장 소 : 함월홀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사실주의 오페라의 최고 봉인 푸치니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인 「라보엠」을 드라마 형태로 각색한 작품



2017 브런치콘서트 행복한아침 클라리넷리스트 채재일 「Autumn Wind」

- 일 시 : 11. 30.(목) 11:00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개 요 : 기암피에리 베니스의 시육제번스타인 클라리넷 소나타 베버 클라리넷 5중주 중 롬도 마스카니 & 지아코마 발레리아루스 터카니 판타지 등

북구문화예술회관



금난새와 함께하는 『빅 콘서트』

- 일 시 : 11. 28.(화) 19:30
- 장 소 : 공연장
- 입 장 료 : 10,000원
- 관 람 료 : 북구청 개청 20주년 특별기획공연으로 금난새와 함께 웅장하고 경쾌한 클래식 곡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공연



무로가족영화상영 『모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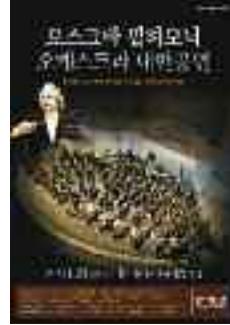
- 일 시 : 11. 29.(수) 19: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람 료 : 무료

현대예술관



가족뮤지컬 정글북

- 일 시 : 11. 2.(목) ~ 4(토) 평일 10:30, 토 11:00, 14: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1층 35,000원, 2층 20,000원
- 개 요 : 화려한 볼거리와 탄탄한 스토리로 80분간 숨막히는 정글 세계로 관객들을 인도할 명품 가족 뮤지컬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일 시 : 11. 27.(월) 20: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95,000원, A석 75,000원, B석 45,000원
- 개 요 : 뛰어난 연출과 연주력으로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고품격 클래식 무대

울주문화예술회관



페이퍼아트뮤지컬 종이아빠

- 일 시 : 11. 4.(토) 11:00, 14:00
- 관 랑 료 : 전석 10,000원
- 개 요 : 공연도 보고, 직접 참여도 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스테디셀러 그림동화책 <종이아빠>의 페이퍼아트 뮤지컬 공연



김소현 손준호의 LOVE&MUSICAL 토코콘서트

- 일 시 : 11. 9.(목) 20:00
- 관 랑 료 : 전석 40,000원
- 개 요 : 뮤지컬 대표 커플과 떠나는 로맨틱 하고 품격 있는 음악 여행으로의 초대! 뮤지컬 작품들과 부부의 알콩달콩한 사랑이야기로 진행 되는 로맨틱한 시간



울주시네마 무비나잇 _ 로벨

- 일 시 : 11. 11.(토) 19:00
- 관 랑 료 : 전석 2,000원
- 개 요 :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은 그녀의 사랑. 제80회 아카데미 최우수단편다큐멘터리상 수상작 원작 사랑을 위해 세상에 맞선 그녀의 감동 실화



11월 하우스콘서트 _ 올디스벗구디스

- 일 시 : 11. 29.(수) 20:00
- 관 랑 료 : 전석 10,000원
- 개 요 :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서 즐기는 작은 음악회, 하우스콘서트!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제는 흘러가버린 노래들을 아카펠라로 불러 아날로그적 친숙함은 물론 노래에 관련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가입 방법

- | 회원기간 | 1년, 3년, 5년, 10년
- | 회원종류 |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구분	가입기준	연회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1인)	25,000원(1인)	40,000원(1인)	75,000원(1인)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유료회원 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 · 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편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시 사용가능

문화예술회관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ORIGINAL PRODUCTION BY V&W VEREINIGTE BÜHNEN WIEN
a company of IntimateTheater

완벽함을 넘어선 최고의 뮤지컬



DAS MUSICAL

레베카

A MUSICAL BY MICHAEL KUNZE & SYLVESTER LEVAY
DIRECTED BY ROBERT JOHANSON

REBECCA

민영기 정성화 송창의 | 신영숙 옥주현 | 김금나 이지혜

12.8(금) ~ **1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